'피서특집' 안방 더위 사냥

불교TV '날마다…' 제주불교·섬문화 축제 조명

불교방송 '…작은콘서트' 안치환등 인기가수 라이브 무대

불교방송과 불교TV는 제주불교와 와이드 탐방, 작은 콘서트, 애청자들이 뽑은 음악 등 무더위를 식혀 줄 여름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IMF시대를 맞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피서를 갈 수 없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마련된 이들 프로중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TV의 '날마다 좋은날, 탐라불교를 찾아'와 불교방송의 '한 여름밤의 작은 콘서트'.

31일 오전10시20분부터 12시까지 1백분간 방영되는 '날마다 좋은날…'(담당PD 신동우)은 제주불교총연합회 소속 의 각 종단과 사찰, 신행단체들의 활동과 지역 불자들의 신행생활 등 알차게 화합된 제주 불교의 모습을 와이드 형식으로 한 자리에 총 망라한 것.

김용, 한서경씨가 함께 진행을 맡을 이 프로그램은 제주불교의 산실 '관음사 및 제주불교 총 연합회 탐방', 고관사·보우스님 사리탑·존자암·신방굴사·국청사 등의 사찰 순례, 명사들과 함께 퀴즈로 제주불교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제주탐구 123' 등의 코너가 마련돼 안방에서 제주불교의 모든 것을 알수 있게 해준다.

또한 봉경신 미륵과 사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오끼나와의 전통무용 '일본의 사자무 미르크'와 4박년 불교축제의 의식행렬을 경건하고 화려하게 표현하는 '스리랑카의 불교축제' 등 세계의 섬문화들이 7월 18일부터 27일간 소개되는 '98 제주 세계 섬문화 축제'도 보여준다.

27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불교방송에서 전파를 탈 '한 여름날의 작은 콘서트'(밤11시5분~밤12시, 담당PD 황용관)는 안치환, 김현정, 동물원, 뱅크, 패닉, 소찬휘 등 인기가수들이 직접 반주하고 부르는 라이브무대로 꾸며져 무더위에 지친 청취자들에게 소나기 같은 시원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조의 다시듣고 싶은 노래'(밤8시5분~밤9시, 담당PD 문태준)에서도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우리 가요사에서 인기를 누렸던 여름 노래들을 모아 들려주고 구전돼 오는 괴담과 전설 등을 극화해 방송한다.

또 '차한잔의 선율'(오전9시5분~오전10시, 담당PD 인희경)은 27일부터 8월2일까지 6일간 '애청자가 뽑은 사랑의 선율 베스트 50', '퀴즈대장경'(오후2시10분~오후3시)은 '방학특집, 어린이 퀴즈대장경'을 각각 마련한다.

한편 광주BBS는 18일 여름철 피서지 정보와 결들어 산과 바다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 주는 '행복한 노래마을'(오후3시20분~오후5시, 담당PD 김형만)을 여름특집으로 준비하며 청주BBS는 8월7~8일 양일간 '사찰별 대항 독경대회'를 '우암산 전망대'(오후4시10분~4시50분, 담당PD 장안수) 시간에 내보낸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호암당 약휴스님(1664~1738) 진영. 순천 선암사 소장.

◇카리빗지오作 '로자리오와 성모'(부분). 1600년경. 비인미술관 소장.

번뇌 끊고 정신집중에 사용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⑫

염주

기도할 때나 염불, 다라니를 외울 때 집중하거나 그 횟수를 헤아리기 위해서 일정한 수의 열매나 구슬을 꿰워 연결한 기도도구이다. 염주는 108주를 기본수로 하는데 이는 백팔번뇌를 끊는다는 의미이며 그 절반인 54개, 절반인 27개와 그것의 절반인 13개로 된 것도 있으며 1000주, 1080주, 3000주 등도 있다.

가톨릭의 '로자리오'로 불리는 묵주(默珠)는 1단(10주)을 기본으로 5단(50주)까지로 되어 있다.

염주를 한알 한알 굴릴 때마다 번뇌가 끊어짐을 상징하므로 일념으로 염주를 돌림에 따라 부처님 광명이 자신에게 충만해지고 죄업이 소멸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여러개의 염주알이 한줄에 꿰어져 있듯 인간들도 서로서로 상의상관(相依相關)으로 얽혀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가톨릭 신부들이나 신자들도 묵주를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기도문이나 성모송등을 외울 때, 명상에 잠길 때 이것을 돌린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주부신행담

너무나 소중한 만남 ①

일곱살쯤의 사월초파일로 기억된다.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가까운 절에 따라간 것이 부처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법당에 계신 황금빛 찬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상호보다도 그 시절의 내겐 일주문이며 울긋불긋 채색된 건물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다. 사천왕이 사람을 밟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께 그 까닭을 물으니 어머니는 남의 것을 훔쳐서 그 벌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을 들은 나는 두손을 합장하고 10원짜리 동전을 사천왕문 문살틈으로 던져 넣으며 굳게 결심을 했다. 절대 남의 것을 욕심내거나 훔치지 않겠다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인다던가! 아무런 강요나 권유도 없었는데 은근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젖어들었나 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망설임없이 불교학생회에 가입하여 조금씩 불교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우리 도시에 오셨다. 스님은 법문도중에 "보살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 손들어보라"고 하셨다. 수줍음 많던 내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그야말로 행무새처럼 책에서 본 구절을 대답한 인연으로 집에와서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는 보살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며 진실한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다.

1979년이었다. 큰언니가 살고 있던 부산시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렀다.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자주 절에 갔었고 한번은 3일간 절에 머무르며 관음기도를 했다. 기도도중 어머니는 내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면서 합격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3일째 되는 날, 다른 날과는 달리 계속 여러시간을 앉아있으니 다리가 몹시 저린 상태도 지나 구름을 탄 듯 몸이 허공에 두둥실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머리 속은 무념무상의 경지가 그러할까 싶을 정도로 투명하고 텅빈 것같은 상태였다. 순간 그 상태가 무섭고 공포에 질려 '나'라는 인식을 잃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기도를 중단하고 말았다. 지금만 같아도 거기서 더 어떤 경계가 닥치나 관찰하면서 놀라기보다는 공부의 차원으로 이해하였을텐데….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에 공무원시험엔 합격했으나 나의 참된 불교공부는 늦어졌다.

그리고 21살 되던 해 초겨울 어린 나이에 한 남자를 만나고 22살 가을에 첫 딸아이를 낳고 3년 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와 우여곡절을 쓰기엔 모자라는 내 필력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어렵기만 하다. 어쩔 수 없던 상황, 죽기보다 어렵고 힘들었으나 번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가까이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지상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일상습관으로 염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나갔다. 어리석고 순하고 착하게만 보였던 남편은 뜻밖에도 고집이 세고 주벽또한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시멘트짜개기가 더덕더덕 묻은 안전화를 신은 채 방에서 자는 것은 보통이고 추운 겨울에도 마당이나 뜨락에서 취해 잠들기도 하였는데 깨우고 방으로 모셔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역겹고 시끄한 술냄새!

그림 · 문병성

우여곡절 끝에 결혼 남편주사는 심해지고… 관음정진으로 견뎌

김정숙 (구미시 선산읍 생곡동)

출 판

본 지면은 0원은 0원속에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계신출판및 관련업체의 지원을 위해 마련된 면입니다.
일정기간 계약된 지면은 해당사에서 자율적으로
자사홍보, 출판광고,신간안내등으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규격및단가 가로 9cm×세로 7cm
이용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 (02)737-8881(代), (02)732-1522(팩) F. (02)737-0697

알기 쉬운 문답식
관상 수상학 강의
딱한번 보고 사람을 알수있는 성공 비지니스의 처세술과 운명학
상(相)을 보는법이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생김새의 미추(美醜)의 마음씨의 선악(善惡)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부귀 빈천의 운적, 그리고 온세상의 길흉을 영글어 생김새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추리하는 원리를 논하는 것이다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창두동 751-14 광성B/D TEL 02)921-8434 FAX 02)929-3470

馬比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
불교 최고의 경전 화엄경!
무비스님 완역 한글 화엄경의 특징
❶ 80권본 화엄경(정본)의 완역판
❷ 모든 불자들이 읽고 독송하기 좋은 새 한글 번역
❸ 중국 大華山판 80권본 화엄경 원문 수록
❹ 화엄경의 이해를 알기 쉽게 풀어한 풀●[illegible] 발간
❺ 장대한 단어 구문과 소제목을 전부하여 내용 파악이 용이함
❻ 전 12권 [illegible]원 양장 카드로도 구입 가능!신청 즉시 택배나 소포로 보내드립니다.
전 12권 160,000원
민족사 서울 동대문구 청진동 208-1 전화 02)732-2403~4, 722-7679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송대 임제종 원오스님 문중의 선사인 심우스님의 송고집에 장과 해설을 붙여만든 (벽암록)은 종문 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말문이가 막 걸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라즈니쉬 강의/류정림옮김 /값 9,000원
성하출판 TEL 273-4451-2 FAX 273-4450

寺刹文化研究院
전통사찰총서
① ② 강원도 Ⅰ·2 ③ 경기도 Ⅰ ④ 서울의 전통사찰 ⑤ 인천.경기도의 전통사찰Ⅱ ⑥ 전남의 전통사찰Ⅰ ⑦ 광주.전남의 전통사찰Ⅱ ⑧·⑨ 전북의 전통사찰 Ⅰ·Ⅱ ⑩·⑪ 충북의 전통사찰 Ⅰ·Ⅱ(근간)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10-1 요진오피스텔 710호 전화 02)396-5318 팩스 02)394-6728

원불의 사상, 역사, 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한국 최초의 책!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말법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맞는 수행법은 과연 무엇인가!
가장 행하기 쉽고 그 공덕 또한 가장 수승한 수행법!
이 책은 다양한 염불의 종류와 이들이 생기된 근원, 발전과정 그리고 각각의 공덕들에 대해 수많은 경전과 논사들의 주장을 토대로 고찰하고 있다.
이태원 지·신국원 엮음 /18쪽 값25,000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6 TEL 02)720-9372-3 FAX 02)723-0646

꿈에서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Ⅰ·Ⅱ·Ⅲ
현대의 지식인들은 무식해질 필요가 있다.
무식해지고 무식해서서 무식이라는 낱말조차 몰일 수 없을때 지리가 드러나리라. 스스로 해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 내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은 유치한 수준도 안된다
이화여대 성내경 교수의 학뜻밤 몽이야기전3권
1권 잠은 잠이 아니고 또는 도가 아니다 2권 갈림길고 위없는 길을 찾아서 3권 해의 길이 밝나면 어둠은 없다
성내경 지음/각권15,000원
도서출판 종명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82 태수빌딩 201호 전화 636-6873 팩스 636-6874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름 돌려 지옥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험적 세계!
무엇한 방법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자를 보으면 영혼은 무용 수가 있는데 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떠도는 지은 업의 모고 자용에 따라 세에 다르게 나타나로 처음에 자기 모해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환이어한 보으는 방도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병은 눈이 낫게 됩니다"
김정기 지·산국판 240쪽 /값6,000원
도서출판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일타큰스님의 불교책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5,000원
큰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으로 엮었다
생활 속의 기도법 문고판/160면/값6,000원
일상생활에서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방법 등을 자상한 법문과 함께 예화위주로 실어 읽기 쉽게 엮었다
기 도 신국판/248면/5,000원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 제자 신도들의 기도성취 체험담 모음집
도서출판 효림 전화 02)587-6612 팩스 02)586-9078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전화를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불교음반유통
음반제작/EVENT기획
松江企劃
내면의 울림/진리의 法音
송강기획만이 자랑하는 불교의 Music!
명상악음
찬불가
불교음악
법문
경전
법문·경전강해
서울 성북구 상월동 184-37 3층
TEL. (02)745-6015 FAX (02)745-6017
공양기획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반으로 보급하는데 신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교학 개론, 종교사의 강의록!
명실상부한 종교 입문서!
어느 종교든 그 종교 나름대로 가지를 지니고 있고 고것은 존중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종교인사상을 말씀하는 우리나라의 한 종교상황을 살펴볼 때 종교적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악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올바른 종교를 정해하는 일일이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이 책을 펴내게 된 목적이다
이 책의 지자는 최대한 소녀은 일반 대지학생이 불교와 이 책시를 대하고 현재 불학대의 종합강의에 출강하고 있다
이 밖는 그들은 교단과 법회에서 불교학 개론과 종교사를 강의한 경험 경험에서 얻은 것이다
도서출판 여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2) 177번지 대형빌딩201호 전화 02)730-6976 전송 02)723-6801

참회문고 1 장·수·멸·죄·경
-태아의 천도공양법-
지수의 어머니 지장보살을 향하여 부모의 회임을 알고 어린영혼들을 일찍에 태어나게 하는 자비의 가르침
참회문고 3 죽음을 준비합시다
-중음신 천도법-
죽음과 환생의 세계를 바르게 배워 살아 임종에당에 하는 소중한 내용이 적절하게 보여지고 있나고 있다
죽은자 환생시에서 영혼은 스스로 제도하는 방교와 방도에 해심되는 가르침
천정영음 /값4,000원
불교출판 蓮池門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전화 0694)52-1755

화엄큰스님의 祖師西來意 달마도 보급
「순금 패스포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에 선사는 '뜰앞의 잣나무니라'라고 답했습니다. 이 공안을 음미합시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 9년 벽면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화두도 음미합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한 방편으로 선불교가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방편으로 전해주신 공부법도 선불교입니다.
화엄큰스님 달마도를 항상 가까이 두고 공부한 공덕으로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지혜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 나무 석가모니불 - 제작자 합장
제품명 화엄큰스님 달마도 재 질 순금 99.9% 크 기 5.2cm × 7cm 가 격 ₩20,000
특 징 순금을 최대한 얇게 펴아 주미니옥. 지갑속에 넣어다닐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 TEL.02)732-1522/737-8881 FAX.02)737-0697

부처를 보려거든 자기의 본래 심중을 보라
달마도의 신비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가꾸시고 지혜의 눈을 열어 해탈을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99.9% GOLD

佛名辭典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
1,420개의 불명해설 (A4사이즈 700쪽, 보급판 730쪽)
각 불명이 갖고 있는 불교 사상적과 자세하게 해설하여 이들이 불교의 어떠 자리 잡힌 구성을 알음이 수록하여 지금 불명인 상황에서 지상적기 위한 자리적의 목적에 다양함을 가지함이다
● 수계에 대한 설명 수록 정신노동 위한 제(戒)를 받는 의식의 순서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고성훈 원음 신국판 양장/319쪽/값20,000원

명산고찰의 사찰음식을 대중건강식으로
신식의 출항 가득한 유명사찰음식 출항라 유서깊은 만사에는 독특하고 유명한 사찰음식이 전해져 내려오는 법·운영사·법전사·직지사·구사·해남대흥사·도리·신흥사·성전사 등의 명소만 전해 음식 음식사찰음식 23여가지를 체계적으로 분류 그 조리법과 상세한 설명사항 수록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2동 1-30 전화 (02)313-5021(5)2 팩스 (02)393-9096
김연식 지음 4·6변형 반양장/196쪽/값 13,000원